

202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경제학원론

0 총 평

-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처음 치루어진 올해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출제범위와 난이도로 출제되었다.
- 경제학 영역별(미시, 거시 및 국제경제학(무역론과 수지론)) 출제문항 숫자와 계산문제 출제비중도 거의 같았다.
- 다만, 충분히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학 출제 문항수가 과거 매년 1문항에서 4문항으로 많아졌다.
- 과거에 다루어지지 않던 주제나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몇 문항이 있었으나 60~70점을 획득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수준의 시험이었다.

0 문제 출제 비중

- 영역별로 미시경제학 19문항(계산문제 11문), 거시경제학 17문항(계산문제 5문) 및 국제경제학 4문항(계산문제 2문)이 출제되었다.
-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이론에서 1문항(계산문제), 국제수지이론에서 3문항(계산문제 1문)이 출제되었다.
- 전체적으로 보면 영역별 변화와 계산문제 출제 비중은 거의 같으나 국제경제학 관련 문항수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다.

0 문제 난이도

- 올해 출제범위와 난이도는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이었다. 다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었으나 수험 준비에 배제하더라도 합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이다.
- 먼저, 미시경제학에서 115문 노동공급, 95문 불확실성 기대치, 88문 완전경쟁단기균형, 87문 게임의 균형에 관한 문제들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계산문제였다. 또한, 84문과 92문은 예외적 생산함수의 생산자 균형을 묻는 문제였다.

- 거시경제학에서는 101문 예외적 통화수요함수, 112문 IS-LM모형 계산 문제, 109문 생소한 용어로 표기된 거시경제학과에 대한 문제였다. 또한 100문, 104문, 105문 등 경제성장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.
- 국제경제학은 무역이론과 수지이론 모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문제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.

0 향후 수험방향

- “경제학원론” 강의를 수강하였거나 기타 경로를 통하여 경제학 기초개념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1차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다.
- 난이도가 높은 부분과 출제빈도가 높지 않은 부문은 과감히 생략할 수 있으므로 큰 부담 없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.
- 수험 준비는 먼저, “경제학원론” 내용을 기본이론서를 이용하여 정확히 정리한다.
- 이어서, 노무사 “경제학원론” 기출문제(최근 10년 정도)를 중심으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파악한다.
- 그리고, 각종 연습문제를 통해 문제풀이를 지속적으로 연습한다.